

추천할 때 ‘-(으)세요’와 ‘-아/어 주세요’ 중 어느 것을 쓰는 게 좋을까요?

좋은 노래나 예쁜 카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설칩니다. 이렇게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한국어로 노래나 카페를 추천해주는 날도 있겠죠? 그럴 때 한국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

‘-(으)세요’와 ‘-아/어 주세요’, 이렇게 둘 중 어느 것을 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?. ‘-(으)세요’가 짧고 좋지만 상대방에게는 약간 명령처럼 들려서 좀 차가운 인상을 주지 않을까?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반면 ‘-아/어 주세요’는 추천하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부탁처럼 들릴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하지요.

그렇습니다. ‘-아/어 주세요’는 말하는 사람(화자)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언가를 추천하는 표현으로는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때에는 ‘-아/어 보세요’를 쓰는 건 어떨까요? 여기에서 쓰인 ‘-아/어 보다’에는 ‘시험 삼아 한번 해 보다’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. 또, 어디까지나 제안하는 표현이므로 부탁과 같은 뉘앙스도 없고 ‘-(으)세요’보다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

만약 노래를 소개하고 싶다면 ‘이 노래 들어 보세요’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장에서 ‘노래’를 ‘카페’로 바꾸고 ‘들어’를 ‘가’로 바꿔서 ‘이 카페 가 보세요’라고 쓴다면 카페를 추천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어떠셨나요? 오늘은 추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칼럼이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연재를 마치겠습니다.

최은경 (나가사키 외국어 대학교)